

학교 '집단따돌림' 실태분석 나선다

도교육청, 초·중 전수조사 통해 대처방안 모색... 지난해 17% "피해봤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사례의 여러 유형 가운데 '집단 따돌림'에 주목, '월포인트' 실태분석에 나선다. 피해 학생 수산 등을 위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통합적인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 '제주도 초·중학교 학생의 집단따돌림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 용역에

작수,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따돌림 실태분석을 진행한다.

연구진은 과업지시서(안)에 따라 집단따돌림 개념 정의 및 기준설정부터 도내 집단따돌림 현황 분석을 비롯해 대처방안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된다.

조사 대상(예정)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수요조사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타 지역 예방 프로그램 우수사례 조사 분석도 함께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집단따돌림'이 학교폭력의 오래된 문제임은 물론 은밀성과 지속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단따돌림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신체적 특징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무서

운 유형 중 하나"라며 대처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진행된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초4~고3 재학생 대상)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응답률(중복응답)은 '언어폭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16년 응답률은 17.5%(245명), 2017년 15.8%(267명), 2018년 16.6%(335명)를 보이고 있다. 오은지기자

'고지도에서 제주를 읽다' 제주대박물관 14일 학술대회

제주대 박물관이 14일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고지도에서 제주를 읽다'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는 조선시대 고지도의 현황 분석을 시작으로 옛 제주사람들의 향로인 물 길 연구, 탐라순력도 재조명, 20세기 초 제주의 정세를 제주도를 통해 살피는 등의 주제 발표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고지도에 담긴 역사적 시각 및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학 박물관장이 제1주제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현황과 유형별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옛 지도에 그려진 제주의 물 길'(김기현 부산대 교수), '조선 후기 회화식 지도와 탐라순력도'(김성희 문화재청 문화재감관), '지도로 본 20세기 초 제주'(양윤정·박선영 성신여대 지리학 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백금탁기자



태극바람개비 돌리는 아이들 11일 제주도 조천읍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열린 태극기 그리기 대회 및 태극바람개비 돌리기에 참가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태극바람개비를 함치며 돌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수요 ↑

서귀포시 올해 172대 지원계획에 317대 신청 효과 높아 농가 관심 부쩍... 예산 확대 절실

감귤하우스 내에 갑작스런 정전이나 기계고장, 화재 감지 등으로 인한 온도변화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이 농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계획물량 대비 신청농가가 갑절 가까이 많아 관련 예산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72농가에 1억5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1, 2차에 걸쳐 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총 317농가가 접수하면서 145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과수하우스 내에 정전으로 인한 환풍기 작동 중단으로 하우스 내부온도 상승 등 온도 변화로 인한 과수 피해예방이 목적으로, 지원기준은 보조 60% 자부담 40%다. 사업단가는 대당 88만원이다.

사업에 대한 농가 관심도 높아 신청농가가 2017년 169농가, 2018년 202농가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원물량을 2017년 95농가, 2018년 150농가에서 올해는 더 확대했지만 농가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

에 견줘 불철 건조한 날씨와 높은 온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재배 면적을 감안하고 고령농, 여성농을 우선 선발해 왔는데 올해는 신청농가의 절반 가까이 탈락하게 되면서 확대 지원을 위해 제주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감귤하우스에서 정전이나 화재 발생시 한 해 농사를 망칠 가능성이 높은만큼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은 투자 예산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며 "부족한 예산을 2회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에 요청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집중 점검

제주시 청결상태·악취발생 정도 등 현장 조사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내용은 악취관리지역 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축사 내외의 청결상태, 악취 발생 정도, 악취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해 검사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대

해 개선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 최근 2년 이내에 반복해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하절기에 축산악취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가에서도 청결은 물론 악취방지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악취를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도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해수부 절반 보전... 오늘부터 시행키로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제주 우도, 가파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 주민이 구입하는 가스, 유류 등 생활 연료의 해상운송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서 지역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생활 연료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 중 절반을 국비로 보전하게 된다.

국비 지원 대상 지자체는 제주를 포함해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곳이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 8개 지자체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해 유류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연료는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와 휘발유·경유 등 유류, 연탄, 난방 연료로 쓰이는 목재 펠릿 등 4가지다.

해수부 관계자는 "도서 지역은 육지에서 도서까지 연료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 생활비 지출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우도 레저보트 충돌 선장 등 2명 입건

해경,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긴급 점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도 면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충돌사고와 관련해 선장 A(54)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8분쯤 제주도 우도 검멀레해변에서 레저보트 A호(승선원 17명)와 B호(승선원 11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장모(26)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최근 수상레저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21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다.

점검 내용은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물의 안전상태, 인명구조장비 적정비치, 이용자 대상 안전장비(구명조끼) 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3회 제주지역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논문 공모전

공모전 참가접수
2019. 6. 3 - 6. 24

CREATIVE
HARMONY
DONATION

주 제

제주의 환경(하수처리, 쓰레기문제, 지하수오염 등)
제주의 인구변화(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고령화와 저출산 등)
제주의 관광(관광객 및 상품의 다변화, 오버투어리즘 등)
제주의 갈등과 치유(제2공항, 해군기지, 4·3 등)
제주의 노동 및 산업(청년일자리, 산업의 변화 등)
그밖에 청년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현안 모두

참가대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대학생 포함)
•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응모단위

개인 및 팀 단위(인원제한 없음) 참가 (대학생 포함)
•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시 상

구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시상금	200만원(1팀)	150만원(1팀)	100만원(1팀)	50만원(2팀)

진행과정

참가자 접수
6월

역량강화 교육
7-8월

프로포절 (논문계획서)
8월

본논문 작성
8-11월

논문발표 및 시상
11월 말

교육1) 제주사회 이해하기
교육2) 논리적 글쓰기
교육3) 기술적 분석 방법

* 역량강화교육 참여자(80%이상 출석)에게는 소정의 참가비를 지원

참가자와 전문가 1:1연결

접수방법 전자메일(jjym11@naver.com)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사)청년제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ymjj.co.kr/
(사)청년제주 사무국(064-746-1885)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청년제주